

“韓-美 간 전략적 투자 이행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부상”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과거 한미 FTA 버금가는 협력 판
올바른 결과 낼 수 있도록 총력”

‘대체 불가 산업·기술’ 확장 제시
식량 등 필수자원 분야 전략 재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간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선 한-미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WTO를 필두로, 개방, 효율, 비차별원칙이 지배했던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통상 질서가 자리잡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미국이 촉발한 관세 재편과 전략 산업 내재화 움직임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상수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도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박정성 산업통상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엔시날 지역에 총 198억달러(약 29조원)를 투입하는 6.4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대체 불가 산업 및 기술’의 공급망 확장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대체 불가 산업, 대체 불가 기술 확보가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 세계 공급망에서 실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대체 불가 산업의 힘으로 연간 수출이 7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를 향해 급성장하는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특히 “대체 불가 산업을 가진 나라는 선택받지만, 대체 가능한 산업만을 가진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경제안보의 현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자원 분야 통상전략 재편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그간 통상질서 하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식량, 핵심광물 등 필수자원 분야에 대한 통상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라는 수세적 대응보다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상조회사 고위험 자산투자 깐깐해진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공정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선수금 1000억 이상 땀 위원회 설치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해 고위험자산 투자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별도의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장래 장례나 여행

등을 위해 납입한 선수금이 고위험 투자 등으로 손실되지 않고 향후 계약 이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을 신설했다.

우선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추진할 경우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치도록 권고했다.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 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에는 할부거래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되면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I 시대 산업현장 품질혁신 한자리에

28일까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산업 현장의 품질혁신 주역들이 모여 성과를 겨루는 ‘산업계의 전국체전’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1975년 시작해 올해로 52회를 맞이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품질분임조가 현장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경연을 펼치는 행사다. 올해는 ‘AI로 여는 대한민국 품질의 미래, 전북에서 한바탕 펼치다’를 주제로 열리며, 총 7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본선 무대에는 지난 5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314

개팀, 2500여 명이 참가한다. 경연은 현장개선,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AI, 탄소중립, ESG 등 총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메달 순위가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 열리는 ‘제52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제조기술이 산업의 생산방식과 품질관리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코트라, 콜롬비아서 ‘K-뷰티’ 판촉전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흐름 탑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최근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흐름에 발맞춰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한 K-뷰티 진출 확대에 나섰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현지 유력 K-뷰티 유통망인 ‘촉촉스킨(CHOK CHOK SKIN)’과 손잡고 ‘The K-Beauty Secret in Colombia 2026’ 판촉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남미 4위 경제대국인 콜롬비아는 주변국에 비해 K-뷰티 시장 형성이 다소 늦었으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對)콜롬비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급증한 78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혜택과 촘촘한 항공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신속한 운송과 인근 중남미 시장 확산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행사에는 에이피알, 무신사, 코스맥스 등 국내 뷰티 선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17개사가 참가했다. 현지에서는 그루포 엑시토(Grupo Exito), 올림피카(OLIMPICA) 등 메이저 유통망과 K-뷰티 전문 유통 관계자, 인플루언서 30여명



코트라는 콜롬비아 대표 K-뷰티 유통망인 ‘촉촉스킨(CHOK CHOK SKIN)’과 손잡고 지난 21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K-뷰티 판촉전 ‘The K-Beauty Secret in Colombia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판촉전 현장의 모습. /코트라

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코트라는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식약처(INVIMA)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행사 이후에는 온라인 후속 상담회를 통해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마사회, ‘이용자 보호’ 중심 건전화 추진

‘제1차 건전화 이행 점검회의’ 열어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개정편람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건전화 추진체계 강화에 나선다.

마사회는 지난 20일 ‘2026년 제1차 건전화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건전화 성과를 점검하고, 사행산업 건전화영 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향후 대응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실명구매 매출 비중 55.4% 달성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반기 차세대

모바일앱 ‘더비온 2.0’의 고도화 및 대면 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더비온 2.0’의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해 실명구매인 전자마권 전환율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도박 근절 위해 AI 기반 불법경마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사이트 및 홍보물 차단 속도를 단축시킨다. 또 10월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국민신고 포상금 한시 상향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민간 참여형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산자원공단,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

해수부·경남도·LG전자와 ‘맞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LG전자 등과 손잡고 ‘바다숲’ 조성을 추진한다. 수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LG전자와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자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해조류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수부와 LG전자, 수산자원공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3억원(국가와 민간이 5:5)을 투입해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역에 바다숲 1.50㎢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해당 바다숲이 조성이 완료되면 주기적인 점검과 해조류 관리 등을 통해 바다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4곳 기관은 ▲해조류 등의 포자가 바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 협약 체결식. /한국수산자원공단

위에 불기 쉽도록 바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EGI ▲해조류 이식 ▲해조류 포자 확산 시설 설치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등을 추진한다.

김종덕 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바다숲 조성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종덕 이사장과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성봉 LG전자 빌트인·쿠싱솔루션 사업부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